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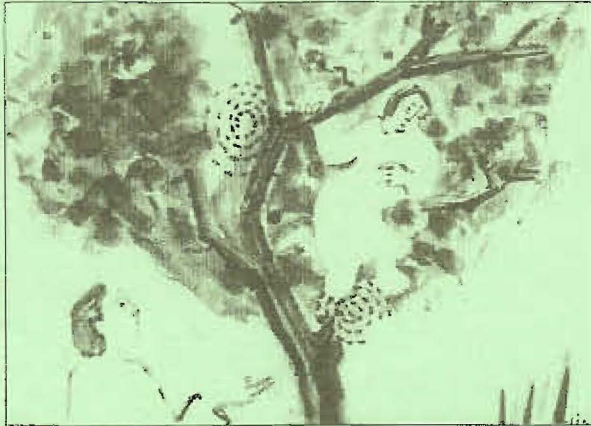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31주일(목주기도 성월)
제30권 49호(다해) 2010-10-31

[묵상]



자캐오야<변진의, 2010년, 세라믹, 개인소장>

세관장이고 또 부자인 자캐오,
그의 가슴을 뚫게 하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
자기와 같은 세리들이나 죄인들도 껴안아주시는 분
그분을 뵈길 원하지만 군중에 가려져 볼 수가 없다.
자신의 키로는 그분께 도달할 수 없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주위의 투덜거림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신다.
하느님의 사랑에 자캐오는 회개로 응답하고
그의 변화에 주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다.

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감격적인 장면은
그분을 뵈는데 장애되는 것을 치우는데서 시작하고
회개의 삶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우리는 무엇에 가려져 그 분을 볼 수가 없나?
무엇에 얽매여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나?

욕심의 키, 신분의 키, 자존심의 키로서는
군중 속에 가려진 그분을 볼 수 없다.
자신의 키를 넘어 나무에 기어오르려는 노력 없인
욕심을 버리는 결단, 나눔을 실천할 결단 없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없다.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 283-5879
연령회 (강례시 연락처) : (310) 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작수달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토 요 특전미사	(연) 박덕기 카타리나
	(생) 성낙호 요셉 & 은혜 실비아 가정
주 일 낮 미사	(연) 이호예 안젤라, 김순희 헬레나 & 김이기 요셉, 고준희 재임스, 이현호 요한, 한병열 토마스, 서인수 요셉, 김몽돌 요셉, 박덕기 카타리나, 박순용 요안나, 엄은섭 도로테오
	(생) 이덕철 루카, 송호민 & 김나영 가정, 박진수 스테파노 & 혜경 레나타, 정동호 하상 바오로, 허정은, 배기엽 클레멘스 & 난군 세레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Wisdom) 11,22-12,2

화답송 ①저의 임금 하느님, 영원히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저의 임금 하느님, 영원히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①저의 임금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②

③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네.④

⑤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⑥

⑦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불드시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⑧

제 2독서 테살로니카 2서(2 Thessalonians) 1,11-2,2

복음 ①알렐루야.

환호송 ②하느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③

복음 루카(Luke) 19,1-10

영성체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02	229
봉헌	257	231
성체	423	303
파견	401	319

3. 살인하지 못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

▶가증할 죄악인 낙태

개인의 생명만이 아니라 문명 그 자체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 생명에 대립되는 "죄의 구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것과 대면하고 있다.

60). 어떤 이들은 잉태의 결과를, 적어도 일정한 날수를 지나기까지는 아직 인격적인 인간의 생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낙태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실제로 "난자가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생명도 아니고 어머니의 생명도 아닌 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생명은 스스로 성장하는 새로운 인간 존재의 생명이다. 그 존재가 기왕에 인간이 아니라면 결코 인간으로 자라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언제나 명백하며……현대의 유전학은 이에 대한 충분한 뒷받침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 유전학은 첫 순간부터 이 살아있는 존재가 무엇이 될 것인지에 관한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한 인격체가 될 것이며, 자신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갖춘 이 인격체는 이미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수정이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지닌 존재의 모험은 시작되는 것이며, 그 존재가 지닌 역량들 하나하나가 제자리를 찾고, 활동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기 위해서는 시간이-비교적 긴 시간이-필요하다. 영적인 혼의 존재가 경험적인 자료에 의해서 입증될 수는 없다고 해도, 인간의 배자에 대한 과학 연구의 결과 자체가 "인간 생명이 생겨나는 첫 순간에 인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성을 이용해서 통찰할 수 있는 유효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인간의 개체가 어떻게 인격체가 아닐 수 있겠는가?"

더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의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인격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인간의 태아를 죽이려는 어떠한 개입이라도 절대적으로 분명하게 금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충분히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의 교도권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 모든 과학적 논의와 철학적 단언들을 초월해서, 교회는 언제나 인간 출산의 결과에 대해서, 그 실존의 첫 순간부터 무조건적인 존중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존중은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진 전체적이고 단일한 인간 존재가 도덕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이다. "인간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한 인격으로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순간부터 그가 한 인격체로서 지닌 권리들을 인정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무고한 인간 존재가 지닌 생명에 대한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61). 성서 본문들은 고의적인 낙태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특별히 단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 본문들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기의 인간 존재에 대한 지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있다.◆(계속)

바람과 해님

어느 날, 바람과 해님이 누가 힘이 더 센가 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내가 차가운 바람을 힘껏 불면 모두가 추워서 얼어붙고 말지.” 하고 바람이 말하자 해님도 “내가 햇살을 힘껏 내리찍면 모두들 더워서 타 죽고 말지.” 어느 쪽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힘이 더 센지 겨루어 봅시다” 하고 바람이 말하자, 해님도 찬성하였습니다. “저기서 걸어오는 나그네의 입은 옷을 벗기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자 바람이 뽀내며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긴 거나 다름없어. 저 정도 걸옷쯤이야 단번에 불어서 날려 버릴 거요.” 바람은 힘껏 숨을 들이쉬었다가 푸우 하고 내뿔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쉿쉿 나그네에게 불어갔습니다. “아니? 갑자기 추워지는데... 옷을 더껴입어야겠군.” 나그네는 보따리에서 옷을 여러 벌 꺼내어 껴입었습니다. “이런? 다시 한 번 해보자. 푸우!” 바람은 다시 숨을 내뿔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옷을 벗기는 커녕 더욱 단단하게 옷깃을 여미고 걸어갔습니다.

“바람님, 안 되겠어요. 이번에는 내 차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해님은 따뜻한 햇살을 나그네 쪽으로 보냈습니다. “아니, 무슨 날씨가 이래? 갑자기 따뜻해 지는군.” 나그네는 땀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님은 더욱 뜨거운 햇살을 나그네에게 보냈습니다. “아이구, 더워! 옷을 전부 벗어 버려야겠군.” 나그네는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고 벌거숭이가 되어, 강물 속으로 푹푹 뛰어들어 갔습니다.

바람은 해님의 힘에 감탄하여, “나처럼 힘만 가지고는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군요.”

프랑스의 라 Fontaine의 우화에 나오는 ‘바람과 해님’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를 들려 드리는 까닭은, 자캐오라는 세관장을 사람들이 냉대하고 소외시켰을 때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를 따뜻하게 불러주고 식탁 공동체로 그를 받아들였을 때의 태도 차이가 그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캐오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때문에 동족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같은 세리들을 친구처럼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꼭 만나 뵙고 싶어했으며, 역시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받아들임과 사랑을 체험한 자캐오는 그동안 그토록 모질게 모았던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자캐오라는 세관장이 사람들의 경멸과 비난의 찬바람을 받아 점점 움츠러들었던 것에 반하여 예수님께서 그를 따뜻하게 맞아들이며 받아주었을 때 모든 것을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하였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율법과 단죄가 아니라 믿음과 자비에 있음을 크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힘으로 회개라는 큰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니다.

◆안성철 마조리노 신부 / 성바오로수도회 준관구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데레사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서용숙 에스텔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윤희 스테파니	이호미 엘리사벳	신종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박혜경 레나타	이순자 비비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11월 위령 성월

위령성월에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교회 학자인 성 암브로시오 주교님께서도 "눈물을 줄이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운다는 것은 잘못은 아니지만 당신을 떠난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 1일(월)오후 7시30분
- ◆ 위령의 날 미사 : 2일(화) 오후 7시30분
- ◆ 병자 영성체 : 4일(목)오전 10시부터
- ◆ 성시간 : 4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진행 토런스 남구역
- ◆ 성모신심 미사 : 6일(토)오전 8시30분

- ◆ 구역장/반장 회의, 일주일 앞당깁니다.
본당 신부님의 영명축일 행사 관계로 11월7일 예정된 구역장/반장 회의를 일주일 앞당깁니다.
- 일시 : 오늘 주일(31일) 오후 1시 강당

- ◆ M.E. 제정 '사제의 날' 행사
10월 마지막 주일은 M.E.가 정한 '사제의 날'입니다. 본당 M.E.는 신부님을 모시고 BBQ 파티를 갖습니다. M.E. 가족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오늘 주일(31일) 오후 5시30분, 친교장
- 연락 : 본당 M.E. 대표부부 김성현 유스티노 & 최연 루시아 ☎(310)347-1665

- ◆ 성모회 된장, 고추장, 새우젓 판매
● 일시 : 11월14일(주일)
● 판매에 필요한 빈병(작은 김치병 크기 등)을 수집합니다.
택에서 쓰지않는 병을 많이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성모회장 최옥희 테레사 ☎(310)508-2912

- ◆ 남가주 여성 제32차 영어 꾸르실료 신청받습니다.
● 일시 : 11월18일(목)~21(주일)
● 장소 : 포모나 꾸르실료 하우스
● 문의 : 이명순 크리스티나 울프레아 간사 ☎(310)749-0276

◆ 본당 신부님 영명일 축하드립니다.

11월11일(수)은 투르의 성 마르티노 주교 기념일로 우리 본당 이장환 마르티노 신부님의 영명일입니다. 부임하신지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신자들을 돌보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축하 모임은 11월7일(주일) 낮미사 후 친교장에서 있습니다. 성모회가 맛있는 점심을 전교우들에게 대접하오니 많이들 참석해주십시오, 그리고 익명의 교우께서 고기를 도네이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삼위 성당 여성 피정

- 주제 :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사야 49,16)
- 일시 : 11월20일(토) 오전 9시30분~오후 4시
- 장소 : 백삼위 성당
- 대상 : 백삼위에 다니는 여성교우
- 접수 : \$5(점심식사 제공) 사무실 또는 여성제단채장
- 신청마감 : 11월14일(주일)

◆ 서예반 제2기 회원을 초대합니다.

- 시간 : 매주 주일미사 후 2층 유아실에서 습작
- 강사 : 일호 박태홍 선생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 '백삼위 작은 음악회'에 수고해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
지난 주일 친교장에서 열린 '백삼위 작은 음악회'에 많은 교우들이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음악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봉사하신 모든 교우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지정된 흡연구역외에서는 금연합니다.

- 본당 건물 북쪽 양 코너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니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배꽂이를 아무데나 버리지 맙시다. 특히 꽃밭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0월31일(주일) : 토런스 서 3반(비빔밥 \$3)
- 11월7일(주일) : 신부님 영명축일을 맞아 성모회가 전 신자들에게 갈비탕을 대접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최수북	장수창	김우용	한혁수	황인종	김찬구	성전헌금	최수북	장수창	김우용	한혁수	황인종	김찬구
	고천용	금영도	강태홍	김철민	이귀란	윤화경		고천용	금영도	강태홍	김철민	이귀란	윤화경
	김교복	임한나	최원석	박기돈	김광자	한금순		김교복	임한나	최원석	한금순	최희태	
	최희태	박제이콥						박제이콥					
합계 : \$1,660							합계 : \$1,335						
미사헌금 : \$2,674.50							감사헌금 : 이인석						

공지사항

◆ 소년 소녀 레지오 단원 모집

- 대상 : 중고등학교 학생들
- 자녀들이 레지오 활동을 통하여 본인의 성화를 이루며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와 신앙활동을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최기남 야고보 꾸리아 단장 ☎(310)569-3940

◆ 본당 비품은 우리 모두의 것, 관리를 잘 합시다.

모든 교실의 책상과 의자는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아주시고, 교실 사용 후 책상은 원래 놓여있던 모양대로 제자리에 놓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창문닫기와 불끄기, 에어컨, 히터 등 사용후 관리를 잘 합시다.

* 주일학교 수업시간 : 주일 오전 10시30분~11시45분

* 한국학교 수업시간 : 주일 낮 12시~오후 3시

남가주 소식

◆故 이태석 신부님의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 영화상영

아프리카 오지 수단 톤즈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한국의 슈바이처' 고 이태석 요한 신부님이 남긴 사랑의 감동 드라마.

- 일시 11월5일(금) ~18일(목)
- 장소 : CGV영화관(구 우래옥 자리)
621 S. Western Av. LA)
- 주관 : 아프리카 희망후원회(회장 김효근 야고보 신부)
- * 상영시간 문의 : ☎(213)258-8665

◆ 위령의 날 합동 미사

- 일시 11월13일(토) 오후 1시 30분 합동 연도, 2시 - 미사
- 장소 : Holy Cross Cemetery
- 주관 : 남가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

◆ 제8차 남가주 한인 가톨릭 청년연합회 성경퀴즈 대회

- 일시 : 11월13일(토) 오후 6시~10시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성당(2040 W. Artesia Bl. Torrance)
- 대상 : 남가주 전역 천주교 청년회
- 문의 : 본당 청년회장 / 정혜린 요안나 ☎(714)329-5237

◆ 추수감사절 합동 야외미사

- 일시 : 11월25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El Dorado E. Regional Park(7750 E. Spring St. Long Beach CA 908150)
- 주례 : 로저 마호니 추기경
- 주최 : 남가주 한인천주교사제협의회/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준비 : 성 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본당 신부님 영명일 축하식	낮미사 후 친교장
----------------	-----------

소공동체 10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배태임 안나 920-5153 11/12(금)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김정웅 요한 530-7702 11/12(금)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11/12(금) 오후 8시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1	이진향 아녜스 989-0366	김교복 레오 328-1817 11/12(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791-1374 10/2(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진영선 크리스티나 212-7543 11/8(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이인석 비오 433-9075 11/19(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김행선 올리아나 972-9193 11/12(금) 오전 10시30분
	3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	김성현 유스티노 347-1665 11/13(토) 오후 6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2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차인수 안드레아 256-6001 11/19(금) 오후 7시
	3	대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김금자 테레사 800-3939 11/13(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귀분 안나 518-1736 11/20(토)
P. V. 김병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송근섭 발렌티노 384-3289 11/12(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관기 라파엘 541-3687 11/13(토) 오후 6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11/12(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김선제 바오로 541-5840 11/9(화) 오전 10시30분 성당

교회청 '교회 통계 연감' 발간

세계 가톨릭 신자 11억 6571만 4천명, 총 인구의 17.4%

9년새 11.54% 늘어... 한국은 227개 국가 중 48번째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 동안 전세계 가톨릭 인구가 11.54% 증가했다.

▶ 교황청 국무원 통계처가 발행한 2010년판 「교회 통계 연감」(Statistical Yearbook of the Church

2008)에 따르면, 2008년 12월 31일 현재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 총수는 11억 6571만 4천명으로 세계 총인구 66억 9835만 3천명(2008년 6월 30일 기준 UN 인구 연감)의 17.4%에 달했다. 이는 가톨릭 신자 수가 2000년에 10억 4505만 6천명에서 1억 2065만 8천명이 늘어난 수치다.

▶ 같은 기간 대륙별로는 아프리카가 33%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어 아시아가 15.61%, 오세아니아 11.39%, 아메리카 대륙이 10.93%로 크게 증가한 반면 유럽은 1.17%로 증가세가 미미했다.

▶ 나라별로는 브라질 1억 6220만명, 멕시코 9803만 3천명, 필리핀 7372만 6천명, 미국 6862만 1천명, 이탈리아 5722만 3천명, 프랑스 4662만 1천명 순으로 집계됐다.

▶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은 491만 4천명으로 세계 227개 국가에서 48번째였으며, 아시아 48개국에서는 베트남 618만 7천명에 이어 5번째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지난 5월에 발행한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09]에서는 5백12만 92명으로 집계, 인구대비 10.1%로 나타나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한국의 가톨릭 인구는 2000년에 4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 10년 간 2-3%의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 전 세계 주교 수는 2000년 4541명에서 2008년 5002명으로 10.15%가 증가했고, 사제 수 또한 같은 기간에 40만 5178명에서 40만 9166명으로 0.98%

가 증가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각각 33.1%와 23.8%가 증가한 반면, 유럽과 오세아니아는 각각 7%와 4%가 감소했다.

▶ 교구 사제는 2000년 26만 5781명에서 2008년 27만

4007명으로 3.1%가 증가한 반면, 수도회 사제는 오히려 3.04%가 줄어 2008년에는 13만 5159명이었다. 특히 유럽은 2000년에 전세계 사제 수의 51%를 차지했으나, 2008년에는 47%로 감소한 반면에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2000년에 17.5%였으나, 2008년에는 21.9%로 증



가했다.

▶ 평수사는 2000년 5만 5057명에서 2008년에는 5만 4641명으로 줄었는데, 특히 오세아니아는 22.06%, 유럽은 16.57%나 급격히 감소했다. 반면에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각각 32%와 10.47%의 증가세를 보였다.

▶ 평수사의 14배에 달하는 수녀는 2000년 80만 명에서 2008년 74만 명으로 줄었다. 대륙별 분포는 유럽이 41%로 가장 높았고, 아메리카 27.47%, 아시아 21.77%였고, 오세아니아 1.28%였다. 그런데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각각 21%와 16%의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 사제 지망생은 2000년에 11만 583명에서 2008년에 11만 7024명으로 증가하였고, 역시 아프리카와 아시아권에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럽은 감소하고 있다.

◆ 자료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해외이주 사목위원회 자료실